

# 한-미 청각장애인 야구의 역사와 현황의 분석

권옥동<sup>1</sup>, 유영설<sup>2\*</sup>

<sup>1</sup>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sup>2</sup>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

## Analysis of the History and Present of the Deaf Baseball of Korea and U.S.

Wook-Dong Kwon<sup>1</sup>, Young-Seol Yu<sup>2\*</sup>

<sup>1</sup>Professor, Division of Sports and Leisure Studies, Daegu University<sup>1</sup>

<sup>2</sup>Teacher, Suwon High School for Agricultural Science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한-미 청각장애인 야구의 역사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비교 분석하여 국내 청각장애인 야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제공에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논문, 신문, 단행본 및 관련 협회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는 문헌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청각장애인 야구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동기 및 성취감을 부여하는 각종 대회가 활발히 개최되어야 하며,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청각 장애인 야구와 청각장애인 스포츠볼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넷째, 청각장애인 스포츠는 궁극적으로 비장애인과의 통합스포츠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청각장애인 야구와 관련된 다양한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청각장애, 야구, 미국, 역사, 현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and analyze the history and present of the deaf baseball of Korea and U.S. This study used text analysis method that applies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esearch paper, newspaper, publications and the data from related associations. This study found followings. First, youth baseball teams need to be vitalized. Second, to maximize the motivation and sense of accomplishment, various tournaments need to be hosted and the support for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tournament is necessary. Third, the interchange between deaf baseball and softball is needed. Fourth, the integration of deaf sport and non-disabled sport is necessary. The results of this study might be used for further researches on deaf baseball.

**Key Words** : Deaf, Baseball, U.S., History, Present

### 1. 서론

청각 장애인 야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처음으로 불러일으킨 계기는 영화 “글러브”이다[1]. 국내 최초의 청각장애인 야구부인 충주 성심학교 야구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18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청

각장애인 야구를 세상에 처음으로 소개하였다[1]. 2002년 9월 9일 “귀의 날”에 창단된 충주 성심학교 야구부는 선수가 9명밖에 모집되지 않아 정식 경기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으로 출발하였다[2]. 그러나 현재는 지속적인 노력과 성장을 거듭하여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등에서 비장애인 야구 선수들과 동등한 경쟁을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Daegu University Research Grant, 2016

\*Corresponding Author : Young-Seol Yu(yssports4u@hanmail.net)

Received February 12, 2019

Accepted April 20, 2019

Revised March 22, 2019

Published April 28, 2019

별이고 있다[2]. 한편 국내 최초의 성인 청각장애인 야구 팀인 드래곤 이어즈는 충청북도 충주를 중심으로 2005년에 창단되었으며[3], 2007년에는 대한 농아인 야구협회(현 한국 농아인 야구소프트볼연맹)가 창립되어 농아인 야구의 체계화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3]. 또한 전국 농아인 야구대회 및 서울 국제 농아인 야구대회 등과 같은 다양한 국내·국제 대회가 개최되면서 청각장애인 야구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4]. 2017년 4월 기준으로 전국 25만 명의 청각장애인들 중 113명 이상이 야구팀에서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5].

이 같은 청각장애인들의 높은 열의 및 참여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각장애인 야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 멀고도 험하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야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술적 연구에 있어서도 청각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청각장애인이라는 키워드로 검색결과 총 400여건의 학술논문이 검색되는데, 이 중에서도 체육사적 연구 분야로 접근한 학술 논문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출간된 단행본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청각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인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청각장애인 스포츠의 발전과정 및 현황에 대한 학술자료를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 야구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진 미국[6]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청각장애인 야구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국내 청각장애인 야구의 역사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국내 청각장애인 스포츠의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청각장애인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학술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신문, 잡지 및 단행본을 1차 자료로 활용하며, 관련 협회의 공식 홈페이지 등과 같은 인터넷 자료를 2차 자료로 사용하여 종합적인 검토·분석을 실시하는 문헌분석방법(text analysis method)을 적용하였다.

## 2. 국내 청각장애인 야구의 역사 및 현황

국내 최초의 공립 특수교육기관은 1912년 일제강점기 시절의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설립된 제생원(濟生院) 맹아부(盲啞部)이다[7]. 특히 맹아부의 교육과정에 체조과목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인 장애인체육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7]. 맹아부에서는 청각 및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 졌으나, 1959년 국립맹아학교가 국립서울맹학교와 국립서울농학교로 분리되면서부터 각각 장애유형에 따라 교육내용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7].

국립서울농학교의 교육여건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체육활동은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어져 왔다[7]. 1962년에는 배구부가 창단되어 여러 대회에서 선전하였으며 뒤를 이어 배구, 축구, 농구, 유도, 씨름 등 다양한 종목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7]. 이후 청각장애인 체육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1975년 제1회 한국 사회사업대학(현 대구대학교) 총장기 전국 농아학교 체육대회 및 1993년 제1회 교육부장관기 전국청각장애 학생 체육대회와 같은 전국 규모의 대회가 개최되었다[7]. 청각장애인 체육이 한층 더 체계화된 시점은 1982년 한국농아인체육회가 설립되고 1984년 국제 농아인 스포츠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Sports for the Deaf)에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한 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7]. 이후 국제대회 참가의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최초로 참가한 국제대회는 1985년 제15회 세계 농아 체육대회(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육상, 사이클, 탁구 등 3개 종목에 10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7]. 이와 같이 청각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은 그 종목과 영역에서 점진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들의 야구참여에 대한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청각장애인 야구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충주 성심학교 야구팀의 창단이다. 충주 성심학교 청각장애인 야구부는 2002년 9월 9일 “귀의 날”에 창단되었다[2]. 국내 최초의 청각장애인 야구부의 탄생이라 할 수 있다. 야구부는 당시 충주 성심학교 교감 조일연의 주도로 창단되었으나 선수가 9명밖에 없어 정식 경기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2].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과 성장으로 2003년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한 이후 비장애인 선수들과 경합을 이어오고 있다[2]. 2005년에는 국내 최초의 성인 청각장애인 야구 팀인 드래곤 이어즈가 충청북도 충주를 중심으로 창단되었다. 드래곤 이어즈에는 충주성심학교 야구부 출신 선수들도 참여하여 졸업 후 야구를 이어오고 있다[3]. 특히

충주 성심학교 야구부 출신 장왕근 선수는 졸업 후 2006년 최초로 대학야구팀(국제디지털대학교)에 정식 입학하였다[8].

청각장애인의 야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아지면서 2007년에는 대한 농아인 야구협회(현 한국 농아인 야구소프트볼연맹)이 창립되어 농아인 야구의 체계화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3]. 2007년 제 1회 전국 농아인 야구대회가 잠실야구장에서 개최되어 2018년 제12회 대회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2008년에는 국제대회 출전을 목표로 대한 농아인 야구협회의 주관 하에 1기 청각장애인 야구 국가대표를 선발하기도 하였다[9,10]. 서울 목동구장에선 제1회 2008 서울 국제 농아인 야구대회가 개최되어 청각장애인 선수들은 국가를 대표하여 대만, 일본 및 중국의 청각장애 대표 선수와 시합을 진행하였다[4].

이후 대중들의 청각장애인 야구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관심을 끌어 모은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영화 “글러브”이다. 2011년 개봉한 강우석 감독의 영화 글러브는 충주 성심학교 야구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그 해 188만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다[1]. 이러한 청각장애인 야구에 대한 관심은 대기업의 후원으로도 이어졌다. OK저축은행, OK캐피탈, 러시 앤 캐시 등을 계열사로 둔 아프로서비스그룹의 후원으로 “OK저축은행배 전국농아인 야구대회”가 2010년 1회 대회부터 2018년 9회 대회까지 개최되고 있다[11]. 최근 개최된 2018년 제12회 협회장기 전국농아인 야구대회에서는 LG+, 동아꿈나무재단, KBO(Korea Baseball Organization),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및 한국 나이키 등의 후원이 이어졌다[12].

특히 한화 이글스 야구단에서는 2017년 “세상에 없던 말, 야구 수어” 캠페인을 실시하여, 135개 야구용어를 수어로 제작하였다[13]. 네이버 해피빈 공감편당을 통하여 캠페인 시작 4일 만에 5000만원에 육박하는 후원금이 모여 국민들의 청각장애인 야구에 대한 관심을 엿 볼 수 있었다[13]. 국내 청각장애인 인구는 약 25만 명에 이르지만, 국립국어원에 등록된 2만 5000개의 수어 중 야구 관련 수어는 홈런, 세이프, 아웃 3개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13]. 새로 제작된 135개의 야구 수어를 통하여 경기진행, 판정 및 관람에 있어서 더욱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제작된 야구 수어 사전은 한화 이글스 공식 웹사이트(<http://www.thebiggestvoice.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청각장애인 야구는 또 한 단계 큰 발전을 앞두고 있다. 한국 농아인 야구소프트볼연맹(구 대한 농아인 야구협

회)는 2019년 10월 “세계 농아인 야구대회”의 한국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12]. 국제 농아인 스포츠 위원회로부터 공식허가를 받은 이 대회에는 세계 13-14개국의 4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2]. 참고로 2018년 한국 농아인 야구소프트볼연맹에 등록되어 대의원으로 활동 중인 팀은 Table 1에 정리 되어 있다[3].

Table 1. List of deaf baseball teams in Korea[3]

No.	Region	Name
1	Seoul	Haechi Sign Language
2	Incheon	Blue Wyverns
3	Hwaseong	Dinos
4	Bucheon	Donggwang
5	Goyang	Angels
6	Ansan	Victory
7	Cheongju	Dragon Ears
8	Cheongju	Gideon Eagles
9	Chungju	Sungsim School
10	Daejeon	Deaf Eagles
11	Daegu	Hawkeye
12	Busan	Deaf Giants

### 3. 미국 청각장애인 야구의 역사 및 현황

미국 청각장애인 야구의 역사는 국내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고교 청각장애인 야구팀이 가장 먼저 창단되고 점차 사회인 야구팀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프로야구에서 뚜렷한 활약을 펼치는 청각장애인 야구선수는 없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야구의 역사가 시작되는 초창기부터 청각장애인 선수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프로리그에서 활동하였다.

청각장애인 야구선수들이 비장애인 선수들과 경쟁하여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 오하이오 농학교(Ohio School for the Deaf, OSD) 야구부의 1879년 원정경기이다. OSD 야구부는 오하이오, 인디애나, 켄터키, 뉴욕등지에서 메이저리그 팀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경기를 치르고 총 44승을 거두었다[14]. 팀의 모든 선수는 단 한명만 제외하고 전원 청각장애인이었다. 추후 3명의 청각장애인 선수는 이것을 계기로 메이저리그 및 마이너리그의 프로선수로 활약하게 되었다[14]. 참고로 18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청각장애 선수는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이외에 마이너리그 및 기타 프로 야구 리그에서 활동한 선수까지 포함한다면 더욱 많은 청각장애 선수들이 미국 야구역사에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존 린(John Ryn)은 미국역사에서 최초의 청각장애 야구선수로 꼽을 수 있는데, 그의 선수생활은 18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4]. 또한 조지 킴(George Kihm), 라이언 케츠너(Ryan Ketchner) 등의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있었다[6]. 메이저리그의 내셔널 리그가 1876년부터 시작[15]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각장애인 선수들의 참여는 야구역사의 초창기부터 함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청각장애인의 야구참여는 경기 중의 수신호의 발달에도 도움을 주었다는 의견이 있다.

Table 2. List of deaf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6]

Name	Position	Year
Edward Dundon	Pitcher	1883-1884
Tom Lynch	Pitcher	1884
William Hoy	Out fielder	1888-1903
Reuben Stephenson	Out fielder	1892
Luther Taylor	Pitcher	1900-08
George Leitner	Pitcher	1901-2
William Deegan	Pitcher	1901
Dick Sipek	Out fielder	1945
Curtis Pride	Out fielder	1993-2006

야구 경기 관람에 있어서 수신호는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코치나 감독은 다양한 수신호를 통하여 선수에게 경기지시를 하며, 심판의 아웃, 세이프 등의 판정도 수신호와 함께한다. 이러한 수신호는 청각장애 선수들에 의하여 발전된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메이저리그 초창기 청각장애인 선수 윌리엄 호이(William Hoy)의 경우 타석의 뒤에서 외치는 심판의 볼/스트라이크 판정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3루수 쪽에 서있는 코치에게 심판의 판정을 수신호로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수신호에 영감을 받은 심판들이 외야수 및 관중들 또한 심판 판정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수신호를 발전시켰다는 의견이 있다[6,16,17].

한편 미국 내에서는 유소년 청각장애인 야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다수의 청각장애 학교에서 야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정규 시합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청각장애인 메이저리그 선수 윌리엄 호이의 이름을 딴 “the Hoy baseball and softball tournament”가 있다. 2018년 4월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제18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제18회 대회에는 캘리포니아 농학교(California school for the deaf)에서 2팀(Reverside, Fremont 지역), 인디애나 농학교(Indiana School for the Deaf), 메릴랜드 농학교(Maryland school for the deaf), 모델 농학교(Model secondary school for the deaf)에서 각각 한 팀, 총 6팀이 게임을 치렀다[18].

대학에 청각장애인 야구팀이 있는 학교는 미국의 갤러렛 대학(Gallaudet university)이 유일하다[19]. 이곳에서 청각장애인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 커티스 프라이드(Curtis Pride)가 감독으로 재직 중에 있다. 갤러렛 대학 청각장애 야구부는 비장애인 야구팀들과 함께 전미 대학 체육 협회(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CAA) division III의 North Eastern Athletic Conference (NEAC)에서 경기에 참가하고 있다[20].

성인부 경기로는 국제경기인 “the deaf world baseball championship”이 2000년 7월 갤러렛 대학에서 개최되었다[14]. 이 경기에는 미국, 캐나다, 쿠바, 멕시코, 베네수엘라가 참가하였다. 결승전에서 미국과 쿠바가 겨루어 미국이 최종 승리하였다. 이 경기는 재정과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개최되지는 못하고 있다[16].

한편 미국의 청각장애인 운동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한 시기는 1945년 “the American athletic union of the deaf(AAUD)”이 창립되면서 부터이다. 현재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af sports federation (USADSF)”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21]. USADSF는 미국 내 청각장애인 스포츠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며 청각장애인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데플림픽 Deaflympics의 출전 및 훈련 등을 주관한다. 안타깝지만 야구 및 소프트볼은 아직 데플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프트볼의 경우 “national softball association of the deaf(NSAD)”이 1992년 설립되면서 야구보다는 팀의 규모나 체계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되었다[22].

미국 내 청각장애인 소프트볼은 야구에 비하여 더욱 대중적인 스포츠인데, 그 이유는 소프트볼의 슬로우 피치 게임 때문이다[23]. 슬로우 피치 소프트볼에서 투수는 공을 언더핸드로 던져야하며 투구가 1.83m와 3.65m사이 크기의 아치를 그려야한다[23,24]. 즉 투구속도가 야구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더욱 많은 청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청각장애인 소프트볼의 인기를 알아 볼 수 있는 대회가 바로 NSAD에서 주관하는 전미 청각장애인 소프트볼 대회(national deaf softball tournament)

이다. 이 대회는 1976년 최초로 개최되었는데 1993년부터 NSAD의 공식 주관 하에 개최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이 경기는 2018년 43회 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하였으며 총 44개(남 24팀, 여 8팀, 혼성 12팀)의 청각장애인 소프트볼 팀이 참가하였다[22]. 1회 경기 당시 8팀만이 경기에 출전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 4. 논의

이 연구는 국내 청각장애인 야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욱 체계적인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청각장애인 야구의 역사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내의 청각장애인 야구는 미국과 비교하여 유소년 및 성인 야구팀의 규모와 참여범위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특히 장기적인 청각장애인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유소년 청각장애인 야구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및 성취감을 부여하는 각종 대회가 많이 개최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청각장애학교에서는 유소년 야구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전국규모의 대회를 개최하여 실력을 겨루도록 한다[20]. 특히 국내에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 소프트볼이 미국 내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다. 소프트볼의 슬로우 피치 게임은 볼의 속도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더욱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프트볼을 국내 청각장애인에게 확대시킨다면 소프트볼과 야구가 함께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며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각장애인 소프트볼과 야구의 팀 및 선수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상호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가지 관심 있게 살펴볼 미국의 사례는 청각장애인 야구선수의 비장애인 야구로의 진출이다. 국내에서는 청각장애인 야구선수의 프로야구 진출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메이저리그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청각장애인 선수의 활동이 이어져 오고 있다. 즉, 청각장애인의 스포츠는 궁극적으로 비장애인과의 통합스포츠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이미 비장애인과 동등한 경쟁을 통하여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18 평창올림픽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을 획득한 김동현 선

수가 있다. 김동현 선수는 청각장애 3급의 핸드캡을 지니고 있지만 비장애인들과의 경쟁을 통하여 은메달을 획득하였다[25]. 또한 테니스에 있어서는 이덕희 선수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덕희 선수는 청각장애 3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린나이 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2013년 만 14세의 나이로 일본 쓰쿠바 퓨처스 대회 남자 단식 본선 1회전을 통과해, 당시 최연소 세계 ATP(association of tennis professionals) 시니어 랭킹 선수가 되었다. 이덕희는 지난 2017년 4월 세계 랭킹 130위까지 진출하였으며, 결국 2018년 아시안게임 테니스 남자단식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2006년 이형택의 은메달 이후 12년 만에 한국 테니스 아시안게임 남자단식 메달리스트이다[26,27]. 이와 같이 궁극적으로 청각장애인 야구 또한 비장애인 야구와의 통합체육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청각장애인 야구 선수 및 팀을 확대하는 한편,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프로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체육에 있어서도 비장애인 사회인 야구단 등과 함께 경기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5. 결론

이 연구는 국내 청각장애인 야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국내외의 청각장애인 야구의 역사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미 청각장애인 야구의 역사 및 현황을 바탕으로 한국 청각장애인 야구의 미흡한 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청각장애인 야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유소년 청각장애인 야구팀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 및 관련단체의 지원이 절실하다.

둘째, 청각장애인이 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및 성취감을 부여하는 각종 대회가 활발히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청각장애인 야구와 청각장애인 소프트볼의 선수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 상호 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청각장애인 스포츠는 궁극적으로 비장애인과의 통합스포츠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논의 및 제한점을 토대로 후

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 청각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학술논문 및 관련 저서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의 자료수집에 있어서도 학술논문 및 저서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지만, 신문보도, 관련협회의 웹사이트 및 국내외 청각장애인야구 커뮤니티 등의 자료가 다소 포함되었다. 즉, 이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전문 학술자료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자료의 신뢰도 및 수준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I. M. Sung. (2018). *Financial News*.  
http://www.fnnews.com/news/201802261945444645
- [2] J. Y. Lee. (2018). *Catholic Times*.  
http://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197500
- [3] Korea Deaf Baseball and Softball Federation. (2018). *Korea Deaf Baseball and Softball Federation*.  
http://www.kodba2007.com
- [4] S. J. Hong. (2008). *Hankyoreh News*.  
http://www.hani.co.kr/arti/sports/baseball/314488.html
- [5] Hanwha Eagles. (2018). *Hanwha Eagles*.  
http://www.thebiggestvoice.co.kr
- [6] B. McKenna. (2010). *Clark Griffith: Baseballs Statesman*. North Carolina: Lulu.com.
- [7]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7). *Disability Sport White Book*.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8] O. K. Jang. (2006). *Weekly Donga*.  
http://weekly.donga.com/List/3/all/11/78310/1
- [9] Munhwa Ilbo. (2008). *Munhwa Ilbo*.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627010728330110060
- [10] Chungju News. (2017). *Chungju News*.  
http://www.cjwn.com/32315
- [11] B. R. Lee. (2018). *Asia Times*.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466
- [12] J. M. Cha. (2018). *Channel News*.  
http://www.channel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953
- [13] S. H. Lee. (2017). *Chosun Ilbo*.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4/2017060400073.html
- [14] Deafdigest. (2018). *Deafdigest*.  
http://deafdigest.net/deaf-baseball-team-professional-to-ur/
- [15] Major League Baseball. (2018). *MLB*. http://www.mlb.com
- [16] S. Miller. (2010).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0/07/25/sports/baseball/25umpire.html
- [17] B. Luke. (2005). *Dean of Umpires: A Biography of Bill McGowan*. NC: McFarland.
- [18] California School for the Deaf. (2018). *CSD*.  
http://csdrathletics.com/hoy2018/
- [19] S. H. Lee. (2014). *Jungang Ilbo*.  
https://news.joins.com/article/16704830
- [20] Gallaudet University. (2018). *Gallaudet University*.  
https://www.gallaudetathletics.com/
- [21] United States of America Deaf Sports Federation. (2018). *USADSF*. https://usdeafsports.org
- [22] National Softball Association of the Deaf. (2018). *NSAD*.  
http://www.nsad.org/
- [23] Deaf & Hoh. (2018). *Deaf & Hoh*.  
http://www.deafandhoh.com/baseball\_softball.html
- [24] World Baseball Softball Confederation. (2018). *WSBC*.  
http://www.wbsc.org
- [25] J. H. Kim. (2018). *Jungang Ilbo*.  
https://news.joins.com/article/22394511
- [26] C. Y. Lee. (2018). *Hankyoreh News*.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859169.html#csidxb8ef7bf7225878b9f9895e330e905a8
- [27] J. M. Park. (2017). *Hankook Ilbo*.  
http://hankookilbo.com/v/7a300cd452cb4ec98b6eb56ae064bc0a

권 옥 동(Kwon, Wook Dong)

[정회원]



- 1996년 2월 : 연세대학교 (체육학 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체육철학, 체육사
- E-Mail : wdkwon@daegu.ac.kr

유 영 설(Yu, Young Seol)

[정회원]



- 2011년 2월 : 충남대학교 (이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교사
- 관심분야 : 체육교육, 체육행정/경영, 육상운동

• E-Mail : yssports4u@hanmail.net